

삼성전자,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 연다



삼성전자가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의 징검다리로 불리는 와이브로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4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4G 포럼 2005'에서 세계 최초로 핸드 오버를 구현한 '와이브로(WiBro)' 공개 시연에 성공했다.

'핸드오버(Handover)'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서비스의 끊김 없이 이동하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개 시연을 통해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시스템 20Mbps, 단말기 2Mbps 속도로 끊김 없이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했다. 도로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120km의 고속에서도 시연이 가능하다.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고속으로 이동하면서도 서비스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핸드 오버 구현에 성공한 것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와이브로 시스템이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 수준으로 이동성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동성이 가장 중요한 와이브로 기술에서 핸드 오버 구현 성공은 와이브로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연구소 등 제한된 공간이 아닌 실제 거리에서 와이브로 공개시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시연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기술 개발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해외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하며, 와이브로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주요 이동통신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 표준화 단체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차량 시연 외에도 와이브로를 이용한 4G 포럼 생중계, 화상통화, 웹 검색 서비스 및 VOD 서비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LG전자, 폴란드를 유럽 DTV 전진기지로

LG전자의 폴란드산 디지털TV가 2007년이면 유럽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폴란드 DTV 제2공장이 내달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LG전자의 유럽 시장 공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LG전자가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디지털TV는 폴란드 므와바(Mlawa)에 위치한 DTV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서부유럽과 동부유럽의 거점지역에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CIS지역과 근거리에는 등 지정학적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인근 국가들에 비해 우수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및 간접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유럽 전진기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 받고 있다.

내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DTV 제2공장은 폴란드 므와바시에 위치한 제1공장과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유럽 평판디스플레이 수요에 대응하게 되며, 제2공장에는 2010년까지 총 1억 1천만발 규모가 투자된다.

LG전자는 유럽 전역의 급격한 DTV 수요 확대에 맞춰 폴란드 정부의 유기적 지원, 인력 공급의 안정성,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의 산업적 이득을 바탕으로 지난 99년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 블루블랙폰, 엡서 3개월 연속 판매 1위	2005.09.02
2	삼성전자, TV 등 디지털 리더십 과시	2005.09.02
3	삼성전자, 흡입력 진공청소기 '사이클로맥스'	2005.09.01
4	삼성 모니터, 중국 소비자만족도 6년 연속 1위!	2005.09.01
5	삼성 애니콜랜드「화려한 변신」	2005.09.01
6	삼성전자, 세계최초 양방향 지상파DMB폰 상용..	2005.09.01
7	삼성전자,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 연다	2005.08.30
8	삼성전자, 세계최대용량 '휴대폰용 메모리카드'..	2005.08.30
9	三星電子, '충남 아산' 地域社會와 함께한다!	2005.08.29
10	삼성전자, '삼성4G 포럼 2005' 개최	2005.08.29
11	삼성전자, 헤어브랜드 '로레알'과 컬러마케팅..	2005.08.27
12	삼성전자, 미서 '사랑의 야구교실' 자선행사	2005.08.2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폴란드를 유럽 DTV 전진기지로	2005.09.05
2	세계 최초 「WCDMA 지상파DMB폰」 개발	2005.09.01
3	세계최대 월 35만장 생산능력 구축*LG전자...	2005.08.31
4	LG전자, 비즈니스 중심의 실용 전시회 IFA 2005...	2005.08.29
5	LG전자 주방가전 통합브랜드 디오스(DIOS) 정식...	2005.08.26
6	LG전자, DVD레코더 콤비 출시어터 출시	2005.08.26
7	LG전자, 한샘 빌트인 가전 독점제휴 체결	2005.08.26
8	LG전자 에어컨, 해외서 호평받아	2005.08.24
9	LG전자 후원 멕시코「소녀의 집」방한	2005.08.23
10	LG전자 노동조합, 「노경(勞經) 손 맞잡고, 경영...	2005.08.23
11	LG전자 노트북, 멕시코에서 최고의 평가 받아	2005.08.23
12	LG전자 브라질법인 「승승장구」	2005.08.22



부터 폴란드 브와바 DTV공장을 유럽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LG전자는 제1, 2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경사 투자를 통해 PDP TV/LCD TV 등 올해 연간 150만대 수준의 유럽형 DTV 생산능력을 2006년 300만대, 2007년 400만대, 2010년 600만대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으로 C이 변경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이송 창 사장 체제 출범과 함께

자회사인 대우전자서비스와의 기업이미지 통합(CI)에 나선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9월1일부터 별도의 사명 변경없이 국내 CI에 한해 '대우일렉'이라는 약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A/S를 담당하는 대우전자서비스는 '대우일렉서비스'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4년 대우전자 출범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온 '대우전자'라는 브랜드가 3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2년 1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명을 대우전자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했지만 100% 자회사인 대우전자 서비스는 사명을 바꾸지 않았다.

회사측은 이번 CI변경에 대해 긴 이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회사에 대해 오인 하거나 혼

대우일렉 DC

대우일렉서비스 DC

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확한 회사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통합된 CI를 구축함으로써 일체화된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대우일렉'으로 바뀐 CI를 9월 1일부터 제품의 포장이나 각종 인쇄물 등에 일제히 사용하며 기업이미지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기, 협력회사와의 "상생 성공모델" 제시



삼성전기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우수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는 "협력회사 Win-Win 활동 대회"를 개최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협력회사 Win-Win활동" 이란?

선진사의 협력회사들은 부품을 선행 개발한 후 대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즉,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기술을 높이고, 대기업이 요구하기 전에 최첨단 제품을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삼성전기가 협력회사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삼성전기의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키려는 상호간 Win-Win활동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강호문 사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삼성전기 임직원들과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 한국

부품소재 산업진흥원 김동철 원장 등 여러 내빈을 비롯하여 80여개 협력회사에서 12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삼성전기의 협력회사 중 지난 1년간 경영, 품질, 제조 등에서 우수한 혁신활동을 펼친 5개 업체가 혁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납기 대응력, 고객 불만 발생 정도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은 방주광 학산업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삼성전기는 행사장 입구에 협력회사 및 삼성전기의 40여개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삼성전기-협력회사 부품전시회'를 별도 마련하여 구매, 연구, 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상호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삼성전기는 상생경영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선포하고,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상생경영 선포식'으로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전했다.

삼화콘덴서그룹 경영진 대폭 교체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등 전기 및 전자부품업체들로 구성된 삼화콘덴서그룹(회장 오영주)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그룹 내 구조조정본부를 신설하는 등 경영구조 혁신에 착수했다.

삼화콘덴서그룹은 그동안의 경영부진을 만회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계열사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작업에 들어간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 그룹은 25일 임시주총을 열어 전문경영인 출신의 황호진 LG전자 자문역을 삼화콘덴서 대표로 영입하고 그룹 내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신백식 전무와 김진옥 전무를 각각 삼화전기 대표, 삼화전자 대표로 승진시켜 임명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신설된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오영주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그룹의 개혁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삼화콘덴서그룹은 1956년 설립된 오한실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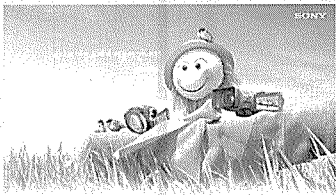
모태로 출발했으며 현재 거래소상장기업인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등 총 8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전자산업용 콘덴서부터 국가 전력기반시설의 핵심인 전력용 콘덴서까지 제조하는 종합 콘덴서 메이커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세계 전자부품 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그룹은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올초부터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왓슨 와이어트와 함께 구조조정 계획수립에 들어 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0년 매출 1조원, 경상이익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그룹 비전 선포식을 최근 가졌다.

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진 체제 구축과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개혁을 통해 철저한 가치창조 그룹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오는 4분기부터 개혁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가 전하는 풍성한 가을소식 '가을의 소니 페스티벌' 프로모션 진행



소니 코리아는 추석, 결혼, 가을여행, 가을운동회 등 다채로운 가족 이벤트가 풍성한 가을을 맞아 9월 1일부터 두 달간 소니의 최신 핸디캠과 사이버샷을 특별 패키지로 판매하는 '가을의 소니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가을의 소니 페스티벌'에 포함되는 제품은 세계최소형 HD 캠코더 HDR-HC1, 편리한 보관 및 사용법이 특징인 DVD핸디캠 DCR-DVD803 및 DVD703, 광학 12배줌

과 손떨림 방지기능을 갖춘 사이버샷 DSC-H1, 멀티 슬롯을 장착한 초고속 포토 프린터 DPP-FP50 제품 등이다.

그 이외에도 HDR-HC1, DVD 시리즈, HC 시리즈 전 모델에 호환이 가능한 핸디캠 액세서리를 초급 촬영용과 고급 촬영용으로 구분 및 스페셜 패키지로 했다. 액세서리는 촬영에 필수 아이템인 배터리, 케이스, 삼각대, 미디어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촬영용도에 따라 최대 28%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알뜰구매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가을의 소니 페스티벌'은 소니의 최신인기 제품들로만 구성,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전자, ISO/TS 16949 (품질인증 시스템) 인증 취득

광전자는 2005년 6월에 품질인증시스템인 ISO/TS 16949의 본심사를 마치게 되어 품질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즉, 광전자는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품질에 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발전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ISO/TS 16949는 ISO와 IATF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차산업분야의 품질보증체제 규격으로서, 유럽과 미국을 통하는 글로벌 규격이다. 즉, 국제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전장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지만 인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어느 산업의 품질 시스템 인증보다 심사 조건과 인증 절차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광전자는 ISO/TS 16949의 인증을 받으므로 국내의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질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대 뷰온 프리미엄 HDTV 출시 및 기념 행사 실시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 기업인 현대이미지퀘스트는 자사의 디지털TV 프리미엄 브랜드인 '뷰온'을 사용하는 HD급 일체형 32인치 LCD TV(모델명: Q320)의 국내 시장 출시와 함께 기념 행사를 실시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현대이미지퀘스트의 '현대 뷰온 Q320'은 디지털 튜너 일체형 제품으로 고급화된 디자인과 기능들이 특징이다. 업계 최다인 14가지 종류의 메모리 카드를 지원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했다

USB를 포함한 3가지 종류의 멀티메모리 카드 슬롯을 통해 14가지 종류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진(jpg), 음악(mp3), 동영상(Dvix, Xvid, MPEG, Motion JPEG)을 PC 등 외부기기의 연결 없이 LCD TV에서 바로 감상 할 수 있다.

분리형 스피커를 채용한 Q320 제품은 슬림하고 심플한 블랙컬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며, 1,000:1의 명암비, 8ms의 빠른 응답속도, 176도의 광시야각, 현대이미지퀘스트의 화질개선 FIT 엔진 등 프리미엄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대이미지퀘스트는 '현대 뷰온 Q320' 출시를 기념하여 8월 17일부터 3천대 한정으로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현대이미지퀘스트 용산직영점, 전국 유통망, 전자랜드 대리점에서 정상이 248만원을 198만원으로 50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시가 20만원 상당의 USB 드라이브(2기가)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삼성SDI, 세계최초 PDP 월생산 20만대 돌파



삼성SDI가 충남 천안공장에서 생산하는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가 세계 PDP 업계 최초로 월 생산량 20만대를 돌파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하반기들어 수요가 대폭 증가, PDP 1, 2, 3 라인의 생산량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져 8월 최종 실적집계 결과 21만5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생산량 9만대와 비교해 볼때 1년만에 139%나 늘어난 것이며 5~6년 먼저 양산을 시작한 일본 업체들의 8월 생산량이 마쓰시타(Matsushita)가 약 15~16만대, FHP(후지쓰 히타치플라즈마)가 약 4~5만대로 잠정 집계된 것과 비교해 볼때 탁월한 실적이다.

특히, 삼성SDI는 8월 생산량 급상승의 여세를 몰아 올해 판매목표를 지난해 보다 153% 늘어난 약 220 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사의 역량을 총 집결해 PDP 생산·판매량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올해 3월 15만대의 월 생산량을 처음 기록한 바 있는데 하반기 들어 PDP-TV의 수요증가로 제품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15만대 달성 5개월만인 8월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대기록은 지난 2001년 7월 PDP 양산을 시작한지 4년 3개월만의 성과로 무엇보다 한창의 유리원판에서 여러대의 PDP

를 생산할 수 있는 다면취(多面取) 공법을 완벽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면취 공법은 생산 효율과 원가절감 효과가 탁월하지만 정상 수율(불량품이 없는 비율)을 기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첨단 공법으로 PDP 업계에서는 단순한 월 최대생산능력 보다 다면취 라인을 통한 안정된 생산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LS전선, 삼양, 두산그룹 공동출자 주조 합작법인 "캐스코(CASCO)" 공식 출범

LS전선, 삼양중기, 두산엔진 등 3사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주조 합작법인인 "캐스코(CASCO)"가 8월 24일 LS전선 군포공장에서 공식 출범행사를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는 구자열 부회장(LS전선), 김윤 회장(삼양사), 이남두 사장(두산엔진)을 비롯 3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구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3사의 서로 다른 문화를 빠른 시간 내에 융합, 시너지를 창출하여 주조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게 된 캐스코는 LS전선과 삼양중기의 경우 사업경쟁력 강화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으로, 두산엔진은 선박용엔진 관련 주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3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지난 4월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캐스코는 LS전선 50%, 삼양중기 37.7%, 그리고 두산엔진이 12.3%의 지분참여를 하고 초기 자본금은 148억원이며, 선박용엔진, 사출성형기 및 각종 산업기계류에 사용되는 주물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내년에는 매출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에는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의 1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KEC, BSI KOREA로부터 ISO/TS 16949 인증서 수여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전문회사인 KEC(대표 박정소)는 8월 22일 KEC 서울 본사에서 세계적인 품질인증 기관인 BSI KOREA로부터 ISO/TS 16949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KEC 대표이사 장동 사장과 BSI KOREA 대표이사 천정기 사장이 참석했다.

KEC는 지난 1월부터 ISO/TS 16949 인증을 위한 추진팀을 구성하여 서울 본사와 구미공장의 반도체와 전자사업의 제품설계에 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업무 PROCESS 에 대하여 ISO/TS 16949 인증을 추진하여, 지난 8월 초 BSI KOREA로부터 최종 인증을 획득하고, 금일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KEC는 금번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전자 업체에게 KEC가 고객가치 중심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시킬 수 있게 되었다. KEC는 금년 말까지 국내 전주공장과 태국공장, 내년 상반기중에는 중국의 3개 생산공장에 대하여 ISO/TS 16949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BSI KOREA 천정기 대표이사는 "KEC가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PROCESS 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KEC가 고객가치 중심의 품질경영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결과에 기인한다"고 축하하였다.